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어머니의 이해와 경험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예 지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어머니의 이해와 경험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예 지

인 준 서

김예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고 은



심사위원 황 인 애



심사위원 권 경 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실제 및 실천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는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 참여자는 유아기 자녀를 둔 유아 어머니 10명이며, 2023년 6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2회씩 총 20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주제나 단어를 찾은 후, 해당 내용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료 연구자, 연구 참여자, 유아교육전문가에 의한 검토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이 현재보다 환경적으로 더 나은 미래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생활습관 형성에 필요한 교육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가정에서 어머니는 친환경적인 생활로 유아에게 긍정적인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환경문제의 원리와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과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유아들에게 친환경 행동을 수행하며 모범이 되어주고 유아들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태도와 행동이 길러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그림책이나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아와 상호작용하였으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 및 활동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관에서의 환경교육 내용과 관련된 실물 자료나 영상 및 서적을 제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환경 관련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해 안내하고 행동을 유도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

육 경험을 떠올려 가정에서도 유아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환경문제로 인해 겪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실천 의지가 약화되는 데서 실행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환경에 대한 유아의 낮은 관심과 흥미 또한 환경교육 실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유아 어머니들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실천을 위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나 재미있는 노래 등의 매체와 환경교육을 보다 쉽고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지식과 환경교육의 방법 및 정보 등이 수록된 지침서와 같은 자료들이 제공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연계활동, 환경 관련 행사나 캠페인을 통한 환경교육의 중요성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자	6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환경교육	9
1) 환경교육의 배경	9
2) 환경교육의 개념 및 특성	11
2. 유아 환경교육	13
1) 유아 환경교육의 정의	13
2)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 및 목적	15
3)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	18
4) 가정에서의 유아 환경교육	22
3. 선행연구	24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 참여자	28
2. 연구절차	36
1) 예비연구	36

2) 본 연구	37
3. 자료분석	42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46
IV. 연구 결과	48
1.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48
1)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48
2)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51
3)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	53
4)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	55
2.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57
1)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57
2)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	68
3.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79
1)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79
2)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요구	85
V. 논의 및 결론	96
1. 논의	96
2. 결론 및 제언	10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28
<표 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38
<표 3>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	40
<표 4> 수집된 자료	42
<표 5> 1차 범주 내용	43
<표 6> 2차 범주 내용	44
<표 7> 최종 범주 내용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과 환경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기에 인간의 삶 속에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의 터전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을 이용만 하며 살아왔다(윤애희, 박정민, 1998). 이러한 결과로 세계는 현재 동식물 멸종 및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환경문제는 모든 국가, 모든 사회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윤애희, 박정민, 1998).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2023)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리스크 중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상현황, 대규모 환경피해 등과 같은 환경유형 리스크가 5개나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최대 리스크 1, 2위로는 기후변화 완화 실패,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꼽혔으며, 상위 10대 리스크 중 6개가 환경 관련 리스크 요인이었다. 또한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악화될 리스크 요인으로는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가 꼽혔으며 천연자원 위기는 위험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가 장·단기 글로벌 리스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리스크에 대해 가장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최현희, 2023).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적 위협을 평가하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6차 평가 보고서(2022)

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은 자연뿐만이 아닌 인간의 광범위한 영역의 전염성 질환, 상해, 정신건강,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영양실조 악화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기상청, 2023).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117개국 6700개 도시의 대기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전 세계 인구 99% 이상이 유해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연간 700만여 명이 나빠진 공기 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했을 뿐 아니라 대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들마저도 엄격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희, 2022).

이러한 환경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기초해 무분별하게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곽은복, 2005).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환경문제는 과학 기술적, 정치적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야기한 주체인 인류의 환경 인식 및 태도,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해결이 가능하다(최혜숙, 심규철, 소금현, 여성희, 2007). 이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문제를 야기한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최호희, 2019).

환경문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해진 요즘, 환경교육은 현재 가장 필요하고 중대한 교육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

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다(환경부, 2015). 이러한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UNESCO(2005)에서는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환경교육은 특히 어린 유아기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최윤지, 2019 재인용). 유아기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때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가 성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환경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김숙자, 우신욱, 2014). 특히 유아기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가치와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신은수, 박은혜, 2012)이므로 유아기에 형성된 환경에 대한 태도는 이후 삶의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미정, 2022). 이에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 환경과 공존하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수연, 2016). 이러한 유아기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보건복지부(2019)의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해설서에는 유아들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함을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들이 가족, 이웃, 동식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책임의식을 지니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이 환경친화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임예지, 김민진,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환

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완결성 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만이 아닌 기관 밖 실제 삶인 일상 속에서의 행동과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유아 환경교육은 평생 동안 지속될 환경에 관한 태도,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계속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미정, 2022).

가정은 유아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장소이자 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다(나혜선, 2016). 이와 같이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가정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환경친화적 태도가 형성되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홍순주, 2007). 유아에게 있어 부모는 유아의 초기 환경의 중요성과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에 부모의 바람직한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 신념,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김영주, 2010). 즉, 부모가 환경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과 관련된 유아와의 상호작용 빈도수 및 질적 수준이 높아져 가정에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며 가정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를 경험하고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장소로써 중요한 환경교육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박희재(2019)의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진(2020)의 원예활동 중심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감수성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수지(2022)의 에코디자인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홍지명(2010)의 전통문화에 기초한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지숙(2012)의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옥새별(2023)의 구성주의 교실에서 3세 유아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이해란(2016)의 만 4세 유아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실행연구, 김지현(2022)의 만 5세 하늘반의 환경교육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등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교사의 실제적인 환경교육의 경험에 대해 깊이있게 탐색해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 또는 가정과 관련된 연구는 김서령(2003)의 환경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경험이 자녀 지도에 미치는 영향, 김진향(2013)의 유아교육기관의 환경교육실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오진미(2014)의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조미정, 김승희(2023)의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 정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 연구들은 유·초·중등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에 초점을 둔 양적 조사 연구 또는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로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부모의 인식과 가정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가정에서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탐구함으로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어려움과 요구를 확인하여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 2)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
- 3)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직장어린이집에서 5년의 보육교사 경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집 지원팀의 보육전문요원 및 컨설턴트로 2년 10개월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교사생활을 하며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완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변화를 직접 겪으면서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고정화된 생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작은 생활습관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친환경적인 생활습관과 인식 및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환경교육을 활발하게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교사생활 때 느꼈던 바와 같이 환경교육 또한 기관과 가정이 협력하여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경험과 함께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은 환경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를 자세하게 탐색해봄으로써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환경교육

유아 환경교육이란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유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환경을 위하는 태도를 보이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조미정, 2022).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에 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습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배경

환경은 인류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총체로써 인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물, 땅, 생활 공간 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동아유치원, 2006). 이러한 환경은 인류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 근간이 되어 왔음에 따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제일의 유산이기도 하다(신옥란, 2005; 김강희, 2014). 이처럼 인간과 환경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에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호하면서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기반인 환경은 현재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결국 인간도 환경문제에 따라 큰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혜란, 2016). 이러한 환경문제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돈형, 1991). 이에 국제기구 등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며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환경부, 2020a).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는 1948년 토마스 프리처드

(Thomas Pritchard)가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설립 총회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이후 197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백서(White Paper)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하였다(환경부, 2015). 그리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 환경회의’를 통해 최초로 지구의 환경문제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고민수, 2016). 이후 1975년 베오그라드에서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UNESCO)가 최초로 환경교육회의를 개최하고 베오그라드 헌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간 환경의 조화, 균형, 문맹, 오염, 기아, 착취의 근본적 제거를 주장하였다(조미정, 2022). 이어 1977년 구 소련의 트빌리시에서는 환경교육 진흥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교육이 세계의 환경보전의 역량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환경부, 2020a). 그리고 1987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환경교육과 훈련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는 1990년의 환경교육 및 훈련 방안을 논의하며 1990-2000년을 ‘세계 환경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정하였다(환경부, 2002). 이와 같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환경교육은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발달 되어 옴으로써 1970년대에는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980년대에는 주로 국제기구에 의해 환경교육에 대한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들이 수행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교육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전개되었다(환경부, 2002).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실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되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이 규정되면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환경부, 2015). 그리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정책

차원의 환경교육이 시작되면서 1992년 교육부는 6차 교육과정 개편에 환경 교과목을 중등 독립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조정윤, 2021). 그리고 2008년 독립법령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환경부, 2022). 이에 따라 환경부(2020b)는 현재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 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2) 환경교육의 개념 및 특성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21세기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의 일면으로써(곽은복, 2005)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NESCO(1980)는 환경교육을 인류로 하여금 생물학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정현미, 2020 재인용). 즉, 환경교육은 자연, 인간 및 문화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을 익히는 교육적 과정의 하나인 것이다(권은선, 2012).

또한 Lucas(1980)는 환경교육의 개념을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육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그에 대한 적절한 기술 및 지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며 환경을 위한 교육은 환경 유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태도와 가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환경 속에서의 교육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밖으로 끌어낸 교육형태로 환경을 관찰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은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육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김은하, 2012 재인용).

더불어 이와 같은 환경교육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환경부, 2002). 또한 통합성, 일상성, 지속성, 균형성의 원칙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일상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와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을 추구한다(환경부, 2020a). 즉,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과 여러 요소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대상은 모든 연령집단 즉,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노인 등 전 국민에 해당하며, 개인의 경우 가정·학교·사회를 통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권은선, 2012).

환경부(2015)에서는 환경교육을 4가지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환경교육은 환경·경제·사회 간의 상호 관련성을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 의사 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사회문제와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

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에 내재한 가치에 대한 논의와 체험학습을 통해 건전한 환경 윤리와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환경교육은 환경친화적 생활을 통하여 높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교육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며, 현재와 미래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전인교육이다(김강희, 2014). 더불어 환경교육은 지식이나 태도의 형성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실천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서정희, 염수경, 1998) 환경교육의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평생에 걸쳐 친환경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 환경교육

1) 유아 환경교육의 정의

환경교육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즉,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교육임에 따라 특히 유아는 미래를 살아나갈 세대이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채아영, 2022). 유아기는 삶의 이해, 가치, 실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생애교육의 초기인 시기으로써(신은수, 박은혜, 2012) 교육의 효과도 매우 커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대부분 성인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러므로 인간 형성의 기초 시기인 유아기 때부터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정희, 염수경, 1998). 즉, 유아기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환경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채아영, 2022). 더불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발달영역에서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적절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도 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된다(이선자, 김신영, 1994).

환경부(2020c)는 유아 환경교육을 유아들이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태도 및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아 환경교육은 유아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올바른 환경소양을 형성하고, 자연과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며, 환경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가깝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인 것이다(안사랑, 2013; 채아영, 2022). 즉,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은 환경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련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을 이용할 때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때에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윤기영, 조경희, 1993).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미래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태도와 습관, 가치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홍수지, 2022).

2)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 및 목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유아의 발달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들은 올바른 환경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환경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며 향후 미래의 환경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최명하, 조부경, 2012).

환경부(2006)에서는 유아 환경교육의 목적을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두었다. 즉, 유아들이 가까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지식 및 기능, 태도를 갖추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 느끼는 것과 아는 것,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인 것이다(김강희, 2014). 따라서 환경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친숙하게 함으로써 환경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길러 유아 스스로 성장하면서 환경보전 및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이효정, 2013).

이러한 환경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내용을 구성하

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지옥정, 조부경, 서윤희, 정애경, 2017). 그런데 환경에 대한 목적은 각 국가와 시대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었다(남상준, 2010).

초기 환경교육의 내용은 주로 인지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자연현상, 동·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8년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환경문제가 더 비중있게 다뤄지기 시작하여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부터는 인간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태적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환경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졌다(지옥정, 조부경, 서윤희, 정애경, 2017). 그리고 2008년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유아 환경교육도 녹색성장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조형숙, 김설한, 2011). 이에 2012년에는 녹색성장교육을 강조하는 누리과정이 공포되어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 사회, 경제 영역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지옥정, 조부경, 서윤희, 정애경, 2017; 채아영, 2022). 이후 녹색성장교육의 학문적 기반이었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유입되면서 환경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수연, 2016; 채아영, 2022).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내용이 기술지향적인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반해 생태지향적인 관점에서 초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위생, 환경윤리, 소비생활 등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용들로 점차 확장되며 윤리적·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홍지명, 2010). 즉,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내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에서 최근 세계화와 국제 환경문제 등과 더불어 환경적 소양을 갖추고 환경친화적 생활 태도를 지닌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환경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송수연, 2016). 이에

유아 환경교육은 이론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가 주변의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생활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이효정, 2013) 자발적으로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맥락을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접근해 생활 및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아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며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해가면서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함양해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옥새별, 2023).

이와 같은 환경교육 내용의 변화에 맞게 환경부(2006)에서는 유아의 주변 환경과 가정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11개 분야인 깨끗한 생활, 깨끗한 물의 보전, 깨끗한 공기의 보전, 깨끗한 흙의 보전, 식물 보호, 동물 보호, 물건 절약, 쓰레기 줄이기, 음식, 소음 줄이기, 에너지 절약을 유아 환경교육의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다. 홍지명(2010)은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의 소중함 인식,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기, 물의 보전, 공기의 보전, 흙의 보전, 깨끗한 생활, 동물 보호, 식물 보호, 생명존중, 함께 살아가기, 절약,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협력, 자연 돌보기로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환경부(2022)의 놀이중심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관, 환경윤리와 환경정의, 전통과 환경지혜, 자연환경, 생활환경, 공기, 물과 바다, 흙, 폐기물, 소음과 진동, 유해 화학물질, 자연재해, 자원과 에너지를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환경교육은 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 생활방식, 환경보전과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정현미, 2020). 또한 단순히 환경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실시하는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심 교육으로 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김세령, 2022). 즉, 유아 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숙한 환경 주제를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 행동을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

유아 환경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유아의 발달수준과 환경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아 환경교육은 인지적 영역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언어적, 정의적, 신체적 상호작용 모두가 통합적으로 포함되며, 과정적 접근을 통하여 유아에 의해 활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아로 하여금 즐겁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이선자, 김신영, 1994). 그러므로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유아들이 구체적 경험을 통해 즐기고 탐구해볼 수 있는 과정적 접근인 동시에 여러 영역과 연관 지어 통괄적으로 사고해나갈 수 있는 간학문적, 다학문적인 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이선자, 김신영, 1994; 홍지명, 2010).

즉, 유아 환경교육은 생활에 기초한 구체적인 경험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유아의 하루일과와 생활 속에서 실시되어야 하며(채영란, 임성혜, 박유영, 2011),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면서 환경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통합성의 원칙에 의해 환경을 총체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예방, 극복 및 해결함에 있어 지식, 방법, 기술을 모두 활용하도록 통합되어야 한다(최돈형, 1991).

환경부(2006)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첫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경험의 시작과 끝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둘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특정한 영역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유아 환경교육은 도덕적 성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넷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역할놀이, 게임, 견학, 사회적·언어적 상호작용과 같은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유아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야외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실외에서 직접 감각을 활용하여 느끼고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여섯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유아 자신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아 개인의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여덟째, 유아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자료는 평면적인 자료보다는 각종 시청각 자료와 잡지,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오감을 자극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홉째,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기관과 가정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필(2001)은 환경교육의 일반적인 교수방법 및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각종 시청각 자료와 잡지, 홍보자료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와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의적인 감수성과 태도를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둘째는 다양한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물 및 자연을 통해 감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셋째는 실험, 견학, 게임, 역할놀이 등과 같이 역동적이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재, 교구를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홍수지(2022)는 유아 환경교육에 적합한 교수방법은 활동의 전 과정에서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을 격려할 수 있도록 유아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박세영(2012)은 유아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알게 된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환경보전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을 직접 실천해보며 환경교육의 내용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영역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아에게 친숙하고 이해 가능한 내용을 흥미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선자, 김신영, 1994; 임홍하, 2022). 더불어 유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가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채영란, 임성혜, 박유영, 2011).

이에 실제로 유아 환경교육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이며 친숙한 교수방법이다. 환경과 관련된 그림책을 이용한 환경교육은 유아의 환경에 대한 지식·태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류혜숙, 신금호, 2010; 김수경, 2014; 유혜숙, 2015). 또한 유아기에 환경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체험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보호와 개선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송순옥, 2018). 이에 동물 기르기, 텃밭 가꾸기, 플로깅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생태를 직접 느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고 습득한

지식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친화적 태도와 실천 행동이 함양될 수 있다(허윤정, 2001; 최명진, 2020; 안미유, 2023). 그리고 뉴스, 다큐멘터리, 광고 등의 미디어 매체는 매력적인 시청각 자료로써 유아들의 흥미도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환경을 실제로 느끼는 데 도움을 주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안사랑, 2013; 임수민 2015; 김영미, 2022). 이 외에도 에코 제품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에코디자인 환경교육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환경보전을 직접 실천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유아들의 환경을 보전하는 지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홍수지, 2022). 또한 환경놀이 경험을 통해 이해한 바를 글과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비주얼씹킹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습득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환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지식과 환경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정윤, 2021). 이처럼 유아 환경교육은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의 선정이 중요하다(김세령, 2022). 유아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일상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되어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정은우, 2013). 더불어 수동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실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박지영, 2017).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 태도, 행동을 더 잘 습득하여 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의 통합적인 접근을 원칙으로(박운애, 2017)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면서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4) 가정에서의 유아 환경교육

유아기는 전인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즉 유아기는 인간 발달과정 중에서 사회·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으로는 크게 가정,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교육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유아에게 제공되었을 때 바람직한 교육적 환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유아기의 가정환경은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박신영, 2011).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므로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은 유아의 교육과 발달을 좌우하는 핵심 환경이다. 이에 부모는 바람직한 가치관, 의식, 태도, 교수방법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아의 교육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모의 과제이다(임효선, 2010).

이처럼 가정은 환경 교육적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초적 의식을 갖게 하는 곳이며, 부모는 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나 태도를 경험함으로써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을 재확인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며,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견뿐만 아니라 해결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은 이 같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이다(홍순주, 2007). 이와 함께 부모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며 부모들이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습관, 태도, 가치관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해감으로써 자녀에게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김정필, 2001). 가정은 개인의 의식과 신념이 형성되는 시기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또한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을 모두 오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두 환경이 서로 분리되고 이질적이며 단독적이라면 유아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생활하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다(오진미, 2014). 더불어 유아 환경교육은 생활교육의 특성이 강하므로 가정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적 접근은 유아의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나의 학습경험으로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다(조미정, 김승희, 2023). 즉,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교육기관 뿐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부모가 유아의 친환경적인 인식과 태도, 습관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유아 환경교육에 있어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단기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태도 또한 단발적인 교육으로 형성될 수 없다.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며 습관화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에 유아 환경교육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평생 계속 되어야 하는 생활교육으로써 일시적인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본보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유아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책임감 있게 환경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김정필, 2001).

3. 선행연구

유아 환경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가정연계 프로그램과 부모의 인식 및 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희숙(2010)은 환경친화적 태도를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행동을 통합적으로 강조하는 가정연계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부모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 행동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가정연계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양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함께 의사결정하기, 유치원에서 전개한 활동과 연계하여 가정 내에서 환경교육 활동하기, 지역사회 활용하기 등을 고려한 30개의 활동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아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가정과 유치원 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오진미(2014)는 가정과의 연계활동 주제로 선정된 ‘물, 흙, 공기, 쓰레기, 재활용’ 5가지의 환경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공유하기, 정보 공유하기, 상담하기, 의사소통하기, 참여하기를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연계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태도와 환경보전 지식이 증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동은 유아 환경교육 방법으로 적절하기에 교육의 효과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조미정(2022)은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주제의 부모대상 교육은 강의 및 토의형식을 활용하여 일

주일에 1회, 유아대상 교육은 이야기나누기 및 게임, 미술, 과학, 역할, 현장 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2회로 10차시를 계획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부모 모두의 환경감수성과 환경보전 태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히면서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보전행동이 연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유아의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관에서 실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가정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환경보전 지식 습득, 환경감수성, 환경보전 태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희숙(2009)은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천도의 경우 부모의 높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 부모의 환경보전 실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였다.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가끔 실행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잘 실행한다는 답변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유아 환경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환경교육 동화 활용,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실천, 체험장소 방문, 영상 매체 활용, 환경 관련 행사 참여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신미영(2000)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아 부모들은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의 변화만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과학기술의 개발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대체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오존층 파괴와

산업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매우 큰 심각성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위협을 느끼지 않는 부모들도 본인이 자랄 때보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 유형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식물 가꾸기, 상황에 따라 안내하기, 폐품을 활용한 꾸미기 및 만들기, 유아교육 기관과의 연계활동, 환경 관련 그림책 읽기 순으로 많이 실천하였다. 부모들은 이러한 환경보전 활동을 하면서 말로는 강조하지만 행동이 잘 되지 않으며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더불어 유아 부모들은 유아기를 환경교육의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의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향(2013)에 따르면 유아 부모들은 유아 환경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는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분리배출을 위주로 유아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희, 염수경(1999)에 따르면 유아 부모들은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수질오염을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외에도 인구문제를 제외한 환경개념, 환경문제 및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영역에서 모두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환경보전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많이 하고 유아 환경교육에 관하여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 부모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유아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적극적인 형태보다는 소극적인 형태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 환경교육의 내

용으로 정의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유아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문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 환경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유아 부모 모두에게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지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유아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유아 어머니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유아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4세, 5세 모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환경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가정에서의 실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자의 지인을 먼저 선정한 후에 선정된 지인을 통하여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연령	학력	직업	자녀 나이	자녀 성별	기관 유형
A	39세	대학졸업	보육교사	만5세	여	어린이집
B	38세	대학졸업	회사원	만5세	남	유치원
C	34세	대학졸업	주부	만5세	여	유치원
D	38세	전문대학졸업	주부	만3세	남	유치원
E	37세	대학졸업	프리랜서	만3세	여	유치원

F	35세	대학졸업	주부	만3세	남	유치원
				만4세	여	유치원
G	29세	고등학교졸업	회사원	만5세	여	유치원
H	36세	대학졸업	주부	만4세	여	유치원
I	32세	대학졸업	주부	만4세	여	유치원
J	32세	대학졸업	육아휴직	만3세	남	유치원
				만5세	남	유치원

1) A어머니

A어머니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만 5세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경험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를 파생시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느끼게 되어 진정한 환경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개인의 영향력은 매우 미세하므로 기업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떨어졌고 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친 환경적인 행사, 견학, 캠페인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반응이 크지 않고 본인 또한 바쁜 업무로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2) B어머니

B어머니는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만 5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B어머니는 출산 전에는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환경을 위한 개개인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해 환경보호를 거의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환경이 자녀의 모든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더불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이나 환경문제의 원리 등 환경과 관련된 지식이 많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부모들에게도 환경보호 행동을 전파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남편과도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부합하여 가정에서 더 원활하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C어머니

C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만 5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C어머니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길러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몸으로 습득하고 체화되기를 기대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관은 본인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고 하였다. C어머니는 특히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고 자녀 또한 동물을 좋아하여 동물 다큐멘터리나 동물 관련 기사 등을 활용해 동물을 아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교육을 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흥미라고 말하며 자녀의 관심사인 동물을 주제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환경교육 실천 경험은 자녀뿐만 아닌 부모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가정에서의 유아 환경교육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 D어머니

D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만 3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D어머니는 현재 유치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와 활동,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안내해주는 것이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의 유치원을 다니게 된 이후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느끼게 되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자녀에게도 친환경적인 행동을 행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D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에 매우 만족해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과 관련된 연계활동이나 부모참여수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환경교육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가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녀가 환경적으로 더 나은 인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전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5) E어머니

E어머니는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 3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절약정신이 투철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현재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E어머니는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유아기 때부터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창시절 태풍 '루사'로 인한 물난리를 직접 겪으며 하루아침에 집이 물에 잠기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생명을 위협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채식주의, 제로웨이스트 운동 등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환경을 깊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현재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풍부한 환경교육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서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6) F어머니

F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만 3세와 4세의 자녀 모두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F어머니는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바쁜 삶 속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번 심층면담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자신의 낮은 관심도와 실천도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더 적극적인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명의 자녀들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운 환경교육의 내용을 잘 기억해 가정에서 다양한 놀이와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에 가정에서는 주로 자녀들에 의해 환경교육이 시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F어머니는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 환경 관련 영상이나 그림책, 재활용품 등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 보내주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가정통신문이나 연계활동은 본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돼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더 열심히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7) G어머니

G어머니는 현재 회사원으로 만 5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G어

머니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낮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회사의 업무와 양육 및 살림으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환경교육보다는 유아가 좋아할 만한 놀 거리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규범에 대해 안내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히려 자녀가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와서 본인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하며 그럴 때마다 자녀를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가정에서는 유아가 주도하는 환경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G어머니는 본인이 환경에 대해 다소 무지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을 가정과 연계해 진행한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가 함께 배우고 행동할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녀에게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녀보다 본인 스스로가 먼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8) H어머니

H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만 4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H어머니는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유치원 숙제를 하기도 빠듯한 시간으로 환경교육까지 신경 쓸 여유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최대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의 관심이라고 하였다. 본인의 관심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언급을 하고 유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환

경교육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워하였다. 유아가 먼저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여야 부모도 환경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배우는 과정 또한 재미가 있어야 교육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흥미있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몸소 경험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9) I어머니

I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로 만 4세의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I어머니는 평소 환경교육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필요성 또한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육아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환경교육을 할 여유가 없고 환경교육을 하려고 해도 잘 듣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자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환경교육의 내용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알아듣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나 자녀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만한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10) J어머니

J어머니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상태이며 만 3세, 5세의 자녀는 모두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J어머니는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는 시댁의 영향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해양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환경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며 국가 차원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2.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면담 질문의 적절성과 방법, 연구 가능성, 면담 시간 측정을 위해 2023년 3월 14일과 3월 19일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아닌 만 3세 유아 어머니 1인과 만 5세 유아 어머니 1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을 활용하여 각 1회씩 약 50분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면담 결과 어머니 2인 모두 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연구를 통해 수집한 유아 어머니들의 면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실천하는 경험이 미래 성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유아기에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들의 모델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실행되고 있었고 이 외에도 만화, 광고, 책을 활용하거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이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더 다양한 환경교육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고 본인 스스로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불분명해 환경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넷째,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환경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였고 적극적인 정부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비연구 면담에서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어려움과 필요한 요구도 있었다. 예비연구 시 면담 시간은 1시간 이하가 적절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연구자는 면담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바꾸며 면담할 필요성을 느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유아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심층면담 시 작성한 면담노트를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담

본 연구는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어머니의 이해와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3년 6월 17일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유아 어머니 10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씩, 총 20회를 진행하였고 면담 소요시간은 1회당 42분에서 63분 정도로 진행하였다. 면담 일정은 연구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으로 정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또는 실시간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질문의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받아 수정·보완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생활,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목적적인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다(김영천, 2017). 이에 사전 면담 질문을 바탕으로 면담을 하되 어머니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대화의 맥락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여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이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메신저를 통하여 추가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회기	어머니명	면담일	면담방법	소요시간	내용
1차 심층 면담	A	2023년 6월 17일	대면	48분	- 연구주제 및 목적과 일정 안내
	B	2023년 6월 26일	실시간 온라인	46분	- 연구 참여 동의서 및

	C	2023년 6월 27일	대면	51분	
	D	2023년 6월 29일	대면	48분	기본사항 작성
	E	2023년 6월 29일	대면	57분	- 1차면담: 환경에 대한
	F	2023년 6월 29일	대면	45분	생각, 유아 환경교육
	G	2023년 8월 13일	실시간 온라인	44분	의 필요성 및 이유,
	H	2023년 8월 17일	대면	47분	환경교육에서 가장
	I	2023년 8월 17일	대면	45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J	2023년 8월 20일	대면	53분	부분
	A	2023년 6월 21일	실시간 온라인	43분	
	B	2023년 7월 3일	대면	57분	- 1차면담 정리 및 확
	C	2023년 7월 4일	대면	56분	인
	D	2023년 7월 4일	대면	45분	- 2차면담: 가정에서의
2차	E	2023년 7월 4일	대면	63분	환경교육 실천 경험,
심층	F	2023년 7월 4일	대면	46분	환경교육을 실천한
면담	G	2023년 8월 27일	대면	43분	또는 실천하지 못한
	H	2023년 8월 23일	실시간 온라인	42분	이유, 가정에서의 환
	I	2023년 8월 22일	실시간 온라인	47분	경교육 실천 과정에
	J	2023년 8월 26일	대면	55분	서 가지는 어려움, 가
					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
	전체 면담 소요시간			981분(약 16시간)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 및 녹화를 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안정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나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을 활용하여 최대한 편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와 rapport 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현재 떠오르는 환경적 이슈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유아기의 자녀 특성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지며 심층적인 면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 1차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환경에 대한 가치는 어떠한지, 유아 환경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의 내용을 정리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다시 물어보며 정보를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더불어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1차면담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면담 때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1차면담 때보다 더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전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집이 더 필요한 부분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

회차	면담준거	질문내용
1차	유아 어머니 및 유아의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나이, 최종학력, 직업 • 자녀의 나이, 성별 및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환경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생각 •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과 이유 •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생각 • 유아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 유아 환경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쟁점)과 이유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사례: 환경교육 실제, 자녀의 반응과 변화, 해당 환경교육을 하게 된 이유, 어머니의 생각, 실천 과정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보람 등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또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 가정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 가정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방안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요구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 및 필요로 하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 가정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방안 •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요구

(2) 면담노트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표현을 면담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의 생각, 느낌, 사실, 이야기, 메모, 대화 내용 등 면담 현장에서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기록(김영천, 2017)하는 면담노트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심층면담 녹음 및 녹화 전사자료, 면담노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자료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전사 기록	2023년 6월 17일 ~ 2023년 8월 26일	총 20회, 녹음 및 녹화 전사기록(A4용지, 141장)
면담노트	2023년 6월 17일 ~ 2023년 8월 26일	면담노트(A4용지, 20장)

연구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전사를 완료해 면담노트와 함께 읽기를 반복하며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면서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고르게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버리는 행위를 분리수거, 분리배출 등의 용어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용어로써 올바른 ‘분리배출’로 통일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기록을 반복해 읽으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주제나 단어를 찾은 후 해당 내용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정리하며 1차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차 범주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비슷한 내용은 재조직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의미의 연관성을 확인하며 2차 범주를 도출하였다. 1차 범주와 2차 범주를 정리한 내용은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1차 범주 내용

연구문제	범주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이유를 알려주는 교육
	결과를 알려주는 교육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요구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사회에 대한 요구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표 6> 2차 범주 내용

연구문제	범주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언어적 상호작용 하기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직접 행동하기
	매체 활용을 통해 관심 지속하기
	체험장소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하기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놀이 연장선상으로 실천하기
	가정연계 활동 수행 차원에서 실천하기
	유아가 주도하여 실천하기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인식과 실천의 괴리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 혼돈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유아의 관심 부족과 짧은 지속성
	재미있는 환경교육 자료 제공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 진행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최종 범주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최종 범주 내용

연구문제	범주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실천하기
	매체 활용을 통해 관심 지속하기
	체험장소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하기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놀이 연장선상으로 실천하기
	가정연계 활동 수행 차원에서 실천하기
	유아가 주도하여 실천하기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인식과 실천의 괴리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 혼돈
유아의 관심 부족과 짧은 지속성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요구	실용적인 자료 제공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 진행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4. 연구의 윤리성 및 신뢰성

1)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연구윤리 과목을 4시간 이수하여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제목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녹취 및 녹화를 한다는 점, 연구가 종료되는 즉시 모든 자료를 폐기한다는 점, 원하는 경우 중도에 연구 참여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 등은 모두 익명으로 표기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2)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정확도를 확보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김영천(2017)이 제안한 방법 중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문제에 따라 범주화 한 최종 내용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동료 연구자에게 보여주어 점검받음으로써 연구자가 행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여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의 초안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읽고 평가해 달라

고 부탁함으로써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연구 결과를 신뢰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유아 어머니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어머니들은 과거 본인이 살았던 환경과 비교하여 현재의 환경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자연과 어울려 놀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마음 놓고 자연을 접할 수 없음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환경교육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솔직히 요새 흙 만지는 것도 좀 더럽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흙 파고 놀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흙에 떨어진 것도 생각 없이 막 주워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 냇가도 있었거든요. 시골에 내려가면 냇가가 있어서 냇가 물 막 마시고 놀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아이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흙 만지는 것도 좀 더럽잖아요. (중략) 그런 거 보면 환경이 오염되어서 못 누리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죠. 나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염 때문에 접하지 못하나 해서 걱정이 되죠.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저는 어렸을 때 주워 먹고 이래도 건강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엄청 깨끗하게 해도 매일 질병에 시달리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있던 동물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옛날에 저는 강원도에 살아서 반딧불이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없으니까 테마파크에 가면 반딧불이 체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심각성이 와닿는 거죠.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시택이 제주도고 어부 일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잡는 어종이 몇 년 전 이랑 많이 달라요. 원래는 고기가 잡혀야 하는 때인데 고기가 안 잡힌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와닿죠.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제가 원래 동해사람이어서 바닷가 사람이거든요. 요즘 동해 가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 약간 고인 느낌이 있어요. (중략) 물고기들도 다량으로 폐사되고 이런 거 뉴스 보면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 그런지 진짜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서 되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D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로 인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현재의 환경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마음껏 만지며 놀이했던 흙과 물은 오염에 대한 염려로 만질 수 없게 되었고, 반딧불이가 멸종되는 동물 보호종의 증가는 어머니들에게 환경을 문제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바다의 모습과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과거 본인이 자연환경에서 누렸던 것들을 현재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여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본인의 삶이 아닌 자녀의 삶을 위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환

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미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좋은 공기 맞으면서 문 다 열어놓고 공기를 실제로 흡입하고 좋은 음식 먹고 꽃도 많이 보고 계절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이게 아이들이 컸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언젠가는 불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요즘 환경이 엄청 안 좋잖아요. 아이들부터도 일단은 교육을 시켜야 어느 정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저야 가면 끝이지만 후손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또 아이를 낳고 낳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아이들이 살 터전이니깐 저는 뭐 나중에 죽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더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환경을 보호해야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해 미래에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먼 훗날에도 자녀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를 걱정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유아 어머니들은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해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생활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유아의 생활습관 형성에 필요한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어머니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제가 그렇게 컸던 것처럼 체화인 것 같아요. 습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요. "이걸 해야 돼" 라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습관 때문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생활의 습관도 그때 안 만들어놓으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아무래도 어릴수록 빨리 흡수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보여주는 게 아이들은 반복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어릴수록 더 몸에 익을 것 같아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어릴 때부터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중략) 사실 모든 환경오염은 편하려고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일상이 되면 사실은 불편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실천하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복학습이 중요한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올바른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이 습득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생활 패턴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 따라 하잖아요. (중략) 지금 이 나이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야 하고 지금이 완전히 흡수하는 나이니까 훨씬 더 중요한 나이죠. (중략)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게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아이가 따라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어릴 때일수록 가정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아이들 행동은 부모 행동을 모방해서 따라가니까 굳이 교육이라기 보다 부모가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냥 부모가 하는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부모가 하는 걸 봐야 아이도 따라 하고 모방 같은 것도 있으니까 유치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도 그걸 해야지 아이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부모를 더 따라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는 교육이구나 하고 그냥 듣는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하거나 형이 할 때 아이가 더 따라 하고 아이들은 모방심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교육적으로만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야 아이도 몸에 익을까 싶어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의 영향이 매우 큰 유아들에게는 부모의 행동 그 자체가 곧 교육임을 이야기하며 모방행동을 통해 배우는 유아들에게 있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안내해주는 것 보다 모범적인 부모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유아들의 친환경적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곧 환경교육이라고 이야기하였다.

3)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유아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하는 행동들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환경의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환경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환경과 관련해서 안 좋은 결과도 보여주고 잘했더니 좋은 결과도 나온다는 걸 시각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걸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해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줘야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미래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어요. (중략)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 해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너희들의 행동 하나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아이가 “제가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미비하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중략) 너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저한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와닿지 않거든요. 자기 생활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걸 10년, 20년 멀리 봤을 때에는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 명, 두 명이 열 명, 스무 명이 되면 또 달라지고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어렸을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를 듣다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내가 분리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체감을 못 하잖아요. (중략)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환경문제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략) 세계적인 기업들이 내보내는 오염물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커서 어디론가 가니까 다 영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연세 있으신 그런 기업의 오너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받고 심각성을 깨닫고 했으면 이렇게 오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에게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안내해줌으로써 환경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였다. 환경보호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며 환경 하나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행동들이 미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4) 직접 경험으로 이해되는 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직접 몸소 경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유아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해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환경교육은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실제로 안 하면 기억에 거의 안 남는 것 같아요. 체득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략) 환경교육은 가서 보고 체험해보고 자기가 직접 만져도 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오랫동안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책 읽고 영상보고 그래도 여행 한 번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남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중략) 말로만 하거나 글자를 읽어줬을 때 느끼는 게 한 20%? 그런데 본인 실생활에 이걸 대입 해주는 게 진짜 아이들이 거기서 이해를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환경교육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C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어머니들은 유아 특성상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환경교육은 실생활 속에서나 여행을 통한 체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재미 요소가 많은 직접 체험의 교육은 유아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 또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유아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한테는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체험 학습 가면 기대되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체험하고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다 기억에 남잖아요. (중략)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억에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 자체가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요소고 거기에 환경이란 걸 접목시키면 더 기억에 남고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해요.

(H어머니, 2차면담, 2023. 8. 23)

앉혀놓고 교육만 해주면 아이들은 안 들어요. 물론 정말 학구열이 뛰어난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경청하고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재밌어야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몸소 체험해야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제가 말하는 것보다 보고 느끼는 게 달라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와닿지 않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체험해보고 하면 엄마가 말로 했던 게 진짜였다고 사실이었다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론적인 안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보고 직접 체험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유아 어머니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유아들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과 방법에 대해 더 오래 기억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2.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실천하거나 매체를 활용하고 환경 관련 체험 장소에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 및 가정연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유아가 주도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부모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책이나 영상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거나 박물관, 행사, 주말농장 등에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실천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유아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때로 유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유아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려주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안내해주는 식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날이야. 근데 비닐은 비닐집이 있고 종이는 종이집이 있어. 네가 비닐집에 넣어줘” 이러면 아이가 들어서 거기에 넣게 하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아이가 놀고 있으면 그 앞에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버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보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학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요.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분리배출은 진짜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배란다에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통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플라스틱은 거기다 넣는 연습하고 분리배출 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랑 같이 나가서 다 직접 분리배출 해요. 이게 어떻게 수거 되는지는 월요일 아침 등원할 때 거의 등원시간이랑 비슷하게 플라스틱 수거차량이 와서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가져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회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데 재활용 플라스틱 가지고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져와서 “이거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가 바다나 땅에 묻히지 않고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면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매일 이야기하고 그다음 비닐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비닐도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종이랑 같이 붙어있는 건 일부러 같이 뜯어요. 두 가지 다른 재질을 뜯어서 다른 통에 넣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교육 목적으로 했던 거죠. 놀이터에서 우리가 간식 먹고 나온 쓰레기를 가져가고 옆에 쓰레기가 있으면 같이 담아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쓰레기를 보면 엄마가 그렇게 가끔 하니까 아이도 “나쁜 사람이네. 어떡해. 버리면 안 되지” 하

고 주워 오기도 하죠. 그게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이도 쓰레기는 주워야 되는 거라는 걸 알고는 있죠.

(D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제가 원래 물건을 잘 안 사거든요. 물건을 잘 못 버리기도 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요? 물도 틀어놓고 손 안 씻게 하고 받아놓고 손 씻게 하거든요. 제 생활습관이 이래서 아이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세정제보다는 보통 비누를 쓰거든요. 비누도 잘 모르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기 때 부터 비누를 써서 비누를 되게 좋아해요. 이러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 싶어요.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밖에 나갈 때도 요즘에 슈퍼 가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있잖아요. 슈퍼 가면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과자나 음료수를 많이 사게 되어서 텀블러 같은데 담아 주는 거 요즘에 조금씩 시도 해보고 있어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애들 물 같은 것도 요즘엔 휴대용으로 뽀로로 보리차 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잘 안 쓰고 텀블러에 끓인 물 담아서 가지고 다녀요. (중략) 일상을 유치원에서 내리면 사 먹는 게 아니고 그 텀블러에 담긴 물을 먹는 걸 습관처럼 들었어요. 계속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이는 이게 당연한 거고 어디 키즈카페 갔을 때 한 번씩 사 먹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친환경적인 자신의 행동을 노출하거나 함께 행동하면서 유아가 자연스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유아와 함께 행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였다.

“음식을 남기면 지구가 아파. 지구가 뜨거워지면 식물도 없어지고 네가 좋아하는 핑크색 고래도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 엄마, 아빠도 사라진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두 손가락 더 먹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잔소리 또 하죠. “너 밥 남기면 지구가 아파”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작은 아이는 아직 식판 같은 걸 주거든요. 먹을 만큼 덜어서 주고 다 먹을 수 있게 하고 남기면 북극곰이 너 때문에 다 죽고 있다고 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남기니까 지금 지구가 뜨거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죠.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집에서 아이가 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쓰거든요. 자기가 씻을 때나 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할 때가 많으니까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그러면 지구가 아프다, 북극곰이 집을 잃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못하게 이야기해요. (중략)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다가도 여백이 많은데도 자꾸 넘기고 넘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나무가 종이가 되고 휴지가 되고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무가 많이 파괴되고 지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딱딱 채워서 쓰라고 말을 해주죠.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휴지를 쓸 때도 “쓰고 여기 접으면 또 쓸 수 있어. 구기지 마” 가르치죠. “이건 다 나무로 만드는 거고 네가 덜 쓰는 만큼 나무가 덜 아플 수 있어. 나무들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지? 네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나무를 덜 아프게 하려면 휴지도 아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해주죠.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둘째가 곤충, 개미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힘을 조절 못 하니까 잡으면 죽어요. (중략) 그렇게 하면 아프다고 개미가 손을 타고 올라오게 해서 다시 집으로 가게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해줬어요. “개미가 엄마 보고 싶을 거야. 개미 엄마가 개미 안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손에 올려서 보더라고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요즘에는 벌들 많이 다니니까 처음에는 벌을 무서워만 했는데 벌이 꽃에 앉아서 “꽃에 있는 꿀을 먹는 거야. 나비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 해줬더니 그다음부터 꽃도 절대 안 건드리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듯이 재네도 먹는 거라고 이야기 해주니까 알아듣고 절대로 꽃을 따거나 만지지 않더라고요. (중략) 꽃을 꺾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서 식물도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고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해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안내해주었고 동시에 그러한 행동이 왜 환경에 좋지 않은 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고 있었다. 즉, 개미나 꽃, 나무 등의 자연물을 함부로 잡거나 만지고 꺾는 작은 행동으로 인해 자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자연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아들의 인식과 행동이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매체 활용을 통해 관심 지속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그림책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유아의 관심을 지속시키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흥미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그림책을 읽어주며 유아들이 그림책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어떤 동물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나가는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땅속에 있는 곤충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렁이는 왜 밖으로 나오는지 이런 환경과 과학에 대한 내용을 되게 쉽게 잘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런 책을 읽어주면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비 오면 “어? 지렁이 어디 있지? 비 오면 지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라고 햇빛 아래에 있는 지렁이 보고 “지렁이 죽겠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책 내용을 떠올리고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고 원래 박물관 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런 데 가서도 “이게 내가 봤던 거네” 하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가족의 이야기인데 아이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엄마는 세제를 많이 쓰고 물을 막 틀어놓고 아빠는 공기를 나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물요정, 땅요정, 공기요정이 나와서 가족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책이었어요. (중략) 쓰레기산도 나오고 쓰레기더미도 나오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진짜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 “땅요정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된대잖아. 책 못 봤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짧아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J어머니, 2차면담, 2023. 8. 26)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의 그림책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책을 읽은 이후에는 책에서 접한 자연물이나 생물 등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책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여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책 속의 이야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실생활 속에서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 환경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동물을 좋아하니까 OTT에 북극곰의 환경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길래 그걸 틀어줬

더니 너무 재미있어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중략) 보면서 제가 이야기 해줬거든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환경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고 온도가 따뜻해지면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녹아내리면 북극곰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지구가 따뜻해지면 저렇게 위험한 거네. 그러면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물도 절약해야겠네” 라고 실제로 말을 하더라고요. (중략) 그냥 상상으로 “코끼리가 물을 못 먹는구나” 이거랑 북극곰이 실제로 디디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디딜 곳이 없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각인이 되잖아요. 엄마가 말하는 북극곰이 사는 얼음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니까 (중략) 얘기해줄 때 확실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어요. “네가 봤던 그거”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아, 맞아. 그랬었지” 하고 저렇게 귀여운 북극곰 살려야 되니까 물도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돌고래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OTT에도 해양생태계 다큐들이 있어서 그런 걸 틀어줬는데 다큐 내용이 환경오염 때문에 돌고래 폐사, 돌연사 그런 게 늘고 있다. 그래서 돌고래를 해부해보면 몸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물들이 나오고 바닷속에 불법 폐기된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저렇게 동물들이 아프구나”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아이한테도 이렇게 알려주면 네가 좋아하는 동물이 이걸 함부로 버리면 아프게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니까 괜찮더라고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최근에 있었던 튀르키예 지진이랑 우체통 녹아내리는 거랑 홍수 난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최근에는 에어컨 계속 틀어달라고 하니까 지진영상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조금만 더우면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에어컨도 봐가면서 틀어야지. 지금 창문 열어도 시원한데 왜 에어컨을 틀어야 해?” 이러면 “그래도 덥잖아요. 에어컨 틀면 시원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줬어요. 에어컨 틀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영상 보면서 “여기 우리나라예요?” 이래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에어컨을 계속 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말해주죠. 아이들은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나한테

올지 안 올지가.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죠. (중략)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확 와닿아서 “알겠어요. 엄마 말이 맞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요. 그냥 말로 했을 땐 잔소리로 듣다가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보여준 건 사실이었어” 이러면서 따르는 편이에요. “저번에 엄마가 보여줬잖아. 알려줬잖아” 이러면 “아, 맞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따라오는 편이에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과 유아가 좋아하는 동물 또는 사회적 현상을 접목시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유아들이 환경문제를 체감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실제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돌고래, 북극곰과 같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사라져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 쓰레기 버리지 않기, 물 아껴 쓰기, 전기 절약하기 등의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진이나 홍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 되는 자연재해 영상을 통해 우리의 생활도 위협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안내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더 나아가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영상을 본 이후에도 영상의 내용을 잊지 않고 더 잘 이해하도록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였다.

(3) 체험장소 방문을 통해 직접 경험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박물관, 과학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유아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 놀이하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흥미를 갖고 환경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자연환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원, 농장 등에 방문하여 동·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 유아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실제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말에 가급적이면 키즈카페 같은 곳 안 가고 요즘에 과학관 같은 곳에도 환경 코너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어린이박물관 갔더니 그런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커튼처럼 막 치고 놀 수 있는 기다란 신축성 있는 재질로 천장에 엄청 많이 커튼처럼 달아놓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았어요. 근데 사이 사이에 보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무게를 잡아줄 수 있게 굳이 플라스틱 볼을 채우지 않고 재활용 요구르트병, 애들이 먹는 페트병 이런 걸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치면서 놀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보이길래 “어? 여기도 쓰레기를 재활용하셨네” 라고 이야기 해줬더니 자기가 노는 공간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교육이 될 만한 장소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26)

어린이박물관에 가니까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들기를 하는 체험도 있었고 빨대같이 생긴 기다란 플라스틱을 이어서 모양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집에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체험할 때 빨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빨대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집에 와서 테이프로 붙여서 해봤어요. 거기서 했던 걸 집에 와서 비슷한 대체품으로 활용해서 활동을 다시 했었어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아이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갈 때 근처에 환경 관련된 곳이 있으면 가보는 편이에요. 전에 여행을 갔을 때 주변에 과학관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애들이 체험하는 건데 모형으로 된 에어컨 온도를 낮추면 북극곰의 빙하가 같이 내려가고 에어컨 온도를 높이면 다시 빙하가 올라가요. 6도씨의 미래라고 해서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도 있고 가뭄, 홍수 이런 사진들도 있고 (중략) 게임도 있었는데 애들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터치를 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기, 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보노보노랑 같이 해서 에너지 관련된 영화도 시청했어요. (중략) 막내가 물을 계속 틀고 있으면 첫째나 둘째가 와서 이렇게 물을 많이 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 봤던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백날 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조금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물 틀어놓고 양치를 하고 있으면 “아빠, 이러면 어떡해요. 컵을 써야죠” 이래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옛날에 집 주변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리사이클 만들기 했었거든요. (중략) 물로 자동차가 간다는 걸 신기해하고 그다음에 폐지를 붙여 가지고 가면 만들기 했는데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이는 자기가 일상에도 폐지로 만들고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굳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재활용품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더 좋아하고 딸이 그걸 유치원 가서 따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폐지 찢어서 붙이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면지 같은 거 찢어서 붙이기 하고 꽃 만들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거죠. 자기는 오려서 붙이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찢어 붙이는 걸 했으면 이제 그걸 배워서 쓰더라고요. 그럼 그게 장난감이 되더라고요. 가면 만들어서 괴물놀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서 성취감도 있을 테고 그거 가지고 장난감으로 놓고 또 배워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친환경 행사가 있었어요. (중략) 거기 물건들이 재활용품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었고 커피 찌꺼기로 열쇠고리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거기서는 지구한테 멘트를 쓰고 병뚜껑이 어떻게 쓸모있는 걸로 다시 나오는지 아이가 진짜로 봤으니까 저희도 그렇고 “우와,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서 분리배출도 조금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만들어진 걸 보는 거니까 쓸모있는 걸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 걸 되게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D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외부활동 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행사를 찾아 방문해 유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기관이나 행사를 방문하여 환경과 관련된 놀이, 만들기, 게임, 영화시청 등의 흥미있는 체험을 하면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단순한 체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재사용품으로 만들거나 꾸미기를 했던 경험을 기억해 가정과 유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유아들은 체험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여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키즈카페 이런 곳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해요. 숲에 가서 언덕을 올라 간다거나 풀을 뜯으면 풀이 아프니까 풀은 보호해줘야 하고 어떤 곤충 보고 알려주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중략) 일부러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여줘요. "이건 하트모양 풀이네. 풀이 별모양이네" 이렇게 알려주고 산책 많이 나가고 그럼 집중도가 되게 높아요. 직접 가서 보고 이거는 어떤 풀이고 곤충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저희 친정 아버지가 용인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주말마다 가니까 아이들이 옥수수 심고 싹이 나고 직접 물 주고 그러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심은 옥수수' 이런 게 되게 크고 자연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달팽이한테 상추를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예요. 반가워하고. 애들이 풀 같은 거를 그냥 풀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건 무슨 열매야?"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옥수수가 할머니댁 갈 때마다 자라잖아요. 되게 뿌듯해하고 "내 키만큼 자랐나?" 그리고 "옥수수는 왜 수염이 나는 거지?" 이러면서 관심을 되게 갖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심어 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풀 같은 거 꺾을 때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네가 자라는 걸 보니까 "애네도 나처럼 키가 크네". "엄마, 옥수수가 한참 자랐지?" 이러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를 따면 나무가 슬퍼할까? 아플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되게 자연에서 노

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제가 집이 용인인데 근처에 생태공원 같은 게 되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나면 잠깐이라도 산책하러 갔다 오면서 “여기서 개구리가 사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벌레를 그냥 여기에 사는 친구들이라고 거미도 여기 사는 친구들이고 딱정벌레도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고 이런 걸 이야기 해주니까 자연이랑 조금 더 친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꽃은 절대 꺾으면 안 되고 예쁘다고 막 만지면 안 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면 옆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먹는 음식점이야. 그래서 애네가 여기서 먹는 거야. 애를 꺾으면 애네가 먹을 게 없어지겠지?” 라고 계속 이야기 해줘요. (중략) 나무들도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저희 아파트 주변에 되게 많이 꺾어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안타까워 하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허억! 재네 다 죽었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조금 인지하는구나 싶었죠.

(B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실내보다는 공원이나 농장을 방문해 자연에서 놀이하며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옥수수에 직접 물을 주고 키워보거나 풀과 꽃을 꺾지 않도록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식물도 성장을 하고 아픔을 느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달팽이, 개구리, 나비, 딱정벌레도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야 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2)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환경교육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식물 키

우기, 분리배출 게임 등의 놀이를 가정에서도 즐기고 다양한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온 유아들의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1) 놀이의 연장선상으로 실천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하였다. 이에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경험한 환경과 관련된 놀이나 활동을 연속해 가정에서도 하고자 할 때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식물 키우기, 텃밭 활동, 숲 놀이 등을 통해 유아들이 가정으로 가져온 열매나 수확물을 함께 보면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 서적과 영상을 찾아보고 함께 놀이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원래 집에 식물이 없었어요. (중략) 그런데 방울토마토 나무도 유치원에서 줘서 키웠더니 되게 커져서 따먹고 있고 아이도 이름 지어줘서 물 주고 분갈이할 때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확실히 자기가 데리고 온 애니까 키워주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치원에서 주니까 키웠지 안 그랬으면 저도 안 키웠죠. 그러네요. 유치원에서 갖고 온 것부터 시작됐네. 유치원에서 카네이션도 주고 방울토마토도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어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유치원 텃밭에서 나무에 물 주고 감자에 물 주고 상추에 물 주고 나중에는 나무 자란 것도 보고 감자는 직접 캐와요. (중략) 내가 키운 거니까 채소 진짜 잘 먹고 물 되게 열심히 주고 식물이 커가는 것을 소중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뜯어내거나 하지 않고 생명을 보듯이 보고 채소 종류도 잘 알아요. 감자, 토마토,

작은 토마토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상추를 따로 모종을 사서 키우고 있어요. 물 주고 이러한 거에 재미가 들어서 그걸 키웠어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유치원에서 숲활동을 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련된 책이 있으면 집에서 한번 읽고 가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저랑 읽어요. 집에 자연관찰 전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있는 건 읽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엄마 오늘 뱀 허물을 봤어. 근데 뱀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인터넷에 요즘 잘 나와 있어서 동영상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준다거나 그런 동식물의 사진, 동영상 보는걸 좋아해요. (중략) 무슨 곤충을 보고 와서 그때는 제가 먼저 꺼내 보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 오늘 이거 봤어” 하면서 그 곤충 책을 꺼내더니 “이거 배웠어” 라고 하고 “뭘 먹는데” 라던지 “어느 계절에 살고 알을 낳는데” 라던지 “여기 보면 잎 이파리 뒤에 여기에 알을 낳는데”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C어머니, 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숲활동, 텃밭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가정에서도 연속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보내준 식물에 유아와 함께 이름을 지어주며 물을 주고 분갈이를 하면서 소중하게 키웠고 모종을 추가로 구입하여 식물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숲활동 전·후로 관련 동·식물에 대한 그림책이나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며 생김새, 먹이, 번식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가정에서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걸로 아이들이 매일 만들기를 해요. (중략) 집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베란다에 해놨잖아요. 아이들이 만들기 좋은 것들 찾으려고 맨날 거기를 뒤지고 저도 자꾸 박스를 갖다주고 그래요. (중략) 자기의 놀잇감인 거예요. 집에서까지 연장선인 거예요. 조개 같은 걸 주워와가지고

그거를 헌 박스에 붙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스티커로 안 꾸미고 조개 주워 와서 꾸미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 갔는데 조개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는데 자기 유치원 가서 친구들과하고 꾸미기 한다고 조개로 꾸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음료수를 먹으면 병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싸 가지고 와서 벌레 수집통으로 쓰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휴지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기 힘들니까 그런 거 갖다 주시면 잘 쓰겠다고 보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기 하려고 휴지심이나 물병같이 깨끗한 건 따로 모아 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걸로 뭘 항상 만들어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유치원에서 장난감들이 우리가 쓰는 냄비들 있잖아요. 탄 냄비나 헛반 용기 같은 그런 것들을 장난감으로 쓰시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헛반 그런 껍데기 나오잖아요. 그럼 모래 놀잇감을 굳이 안 사고 거기에 진흙 넣어가지고 밥 만들어서 놀고 못 쓰는 주전자, 수저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근데 그걸 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유치원에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아, 내가 놀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깐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버리잖아요. 더럽다고 하고 그런데 개는 그런 걸 화장실에서 다 씻어서 모아놓더라고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게 자기 장난감이요 놀잇감이 되어 버리고 그냥 빈 뚜껑도 다 모아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유치원에서도 혹시 이런 재활용품이 나오는 게 있으면 아이들 만들기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니 보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내고 뭐가 조금 물어 있어서 유치원에서 쓰시기는 조금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제 놀이 겸 했었죠. 페트병 안에 콩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째랑째랑 흔드는 것도 소리가 나니까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할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레고도 꺼내오고 해양동물 피규어도 꺼내와서 함께 갖고 놀죠. 휴지심이 되게 많이 나오잖

아요. 휴지심을 모아서 로봇 같은 것도 만들었고 펭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놀이했었어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어제도 쓰레기통을 다 꺼내다가 거실에 갖다 놓더니 분리배출 놀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부모참여수업 때 같이 분리배출 놀이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나 봐요.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가지고 오더니 우리 집 쓰레기로 놀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종이 자리야. 여기는 캔 자리야” 이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F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이 가정에서도 이를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관찰해 원활하게 놀이로 표현될 수 있도록 깨끗한 재활용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용품 놀잇감을 만들어 주면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깨끗한 재활용품을 모아 놓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유아들이 스스로 만들기 재료나 모래 놀잇감으로 활용해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활용품으로 마라카스, 로봇, 펭귄, 고양이를 만들며 함께 놀이를 즐겼다. 또한 분리배출 게임을 통해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직접 실천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2) 가정연계 활동 수행 차원에서 실천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 관련 주제로 제공되는 연계활동에 유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유

아의 행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거나 환경에 대한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에 대한 유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노력하게 됨으로써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활발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분리배출 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플라스틱 씻어서 자기가 분리배출함에 넣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걸 씻어야지 안이 깨끗해져서 다시 쓸 수 있어” 한 번 더 이야기해줄 수 있었어요. 집에서도 그냥 “저기다 넣고 와. 쓰레기통에 넣고 와” 하는데 이게 숙제니까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오늘도 당장 분리배출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쓰레기 줍는 거 사진 찍어 보내면 유치원에 가서 발표를 하고 상을 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발표를 하면 ‘환경보호 실천상’ 이런 상장도 주더라고요.

(F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아프리카 친구가 꿀을 팔아야 가방을 사고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벌이 사라져서 꿀을 팔 수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이야기를 활용해가지고 그림일기를 써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중략) 그때 제가 “네가 음식을 남기면 지구가 아프잖아.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져. 뜨거우면 물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 친구였던 그레이스를 그려주면서 제가 “꿀이 있으려면 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벌이 사라졌대. 벌이 없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돌고래를 색칠하고 편지를 쓰는 게 왔었어요. 내가 돌고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엄마, 아빠 분리배출 도와주기라던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해서 색칠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색칠해오는 아이들한테 '환경 지킴이상'을 줬었어요. (중략)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이게 다 바다로 간대. 그래서 돌고래가 아프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리배출 잘 해야 돼.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 알려줬어요.

(J어머니, 2차면담, 2023. 8. 26)

여름방학 때 유치원에서 식물키트랑 관찰도감 쓰는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물 준 날 스티커 붙이는 거 해서 애들은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 주고 내가 스티커 붙인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서 관찰할 때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이 자라나는 포인트들을 적어주셔가지고 '어떤 식물이 자라나나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관찰일기를 그림 그리는 걸로 해서 관찰도감을 썼었어요.

(C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사진찍기, 영상찍기, 편지쓰기, 관찰도감 쓰기 등 유아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분리배출을 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벌과 아파하는 돌고래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식물키트를 활용해 식물에 물을 주고 직접 키우면서 관찰도감을 통하여 식물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유아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아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일부러 "엄마, 내가 이거 버리고 올게" 하면서 분리배출

통에 가서 버려주기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때 한 번 해봤잖아요. 엄마가 “이거 버리고 와” 하는 거랑 “유치원에서 찍어서 보내달래” 해서 했었으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리를 아니까 “엄마, 내가 한 번 해볼게”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하는 건 있어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종이 버리는 거 찍었더니 캔 버리는 것도 찍으라고 자기 사진 많이 보내 달라고 발표하고 싶고 선생님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분리배출하니까 와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중략) 환경을 보호하려면 해야 하는 거지만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실천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레기가 있으면 막 주워요.

(F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제가 얼마 전에 “네가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지구가 아프잖아. 그러면 별이 사라지잖아” 했더니 갑자기 “그래서 그레이스가 가방을 못 샀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별이 사라져서 이제 꿀을 못 파는 아프리카 친구 그레이스한테 편지를 써줬던 걸 기억하고 그레이스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진짜 애한테 도움이 됐구나 싶었어요. 나갈 때마다 별을 보면 그레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E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본인이 뭔가를 길렀다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책임감? 본인이 물 주는 거 까먹으면 이제 “애도 살아있는 생명이야. 애도 물이 있어야 살고 물을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C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유아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

다. 유아들은 연계활동의 경험을 떠올려 스스로 분리배출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였고 어머니가 연계활동과 관련지어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면 유아도 이를 기억하고 더 잘 이해하였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와 함께 하는 유아교육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환경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 유아가 주도하여 실천하기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경험을 가정에서도 연속하여 실시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유아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부모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계기로 환경교육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환경교육 경험이 유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으로 연계되었다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물은 꺼야 되고 양치할 때는 양치컵에 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고 집에서 불을 켜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본인이 말을 하죠. "선생님이 불 끄고 다니래. 불 누가 켜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배운 걸 집에서 해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물컵 받아서 써야 된다고 양치할 때 그 얘기 꼭 하고 "엄마, 컵이 없잖아. 가져와야지. 물 아껴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물 없으면 못 씻어. 더러워도 씻을 수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유치원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안 챙기면 딸이 그렇게 혼내요. 유치원에서 배우고 와서 장바구니 안 챙겨오면 차에 가서 다시 가져오라고 해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유치원에서 관련 수업을 듣고 와서는 “엄마 이렇게 하면 지구가 아프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와서 제가 안 쓰는 불 켜놓으면 “엄마, 이거 왜 켜놨어? 지구가 아파” 하고 꺼요.

(C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유치원에서 배우니까 “지구가 아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중략) 제가 뭐 안 먹으면 “엄마, 이거 남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유치원에서 환경적인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배워오니까 그게 더 극대화되면서 제가 처음에 분리수거라는 말을 썼거든요. “분리수거 아니고 분리배출이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 “오늘 분리배출 하는 날이네” 이걸 자연스럽게 알고더라고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유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절한 환경용어 사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부모에게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안 쓰는 불은 끄고 양치를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분리수거’가 아닌 ‘분리배출’ 이라며 올바른 용어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운 환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인식 및 행동을 다시 한 번 상

기하고 유아 부모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유치원에서 먼저 배워왔어요. (중략) 저는 실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하니까 같이 하게 되었죠. 오히려 유치원에서 아이가 배워와서 저한테 해주는 게 더 많아요. (중략) 물 아껴 쓰거나 분리배출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배운 대로 하니까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엄마 왜 안 해?” 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같이 하는 거죠. “엄마, 물은 아껴 써야 돼” 이러면 “네가 이야기했으니까 엄마 물 끌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G어머니, 1차면담, 2023. 8. 13)

저는 별로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해서 따라 하게 되는 입장이에요.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원래는 쓰레기 같은 것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좁게 되고 그런 게 있죠. 평소에는 안 주웠을 텐데 엄마가 해야지 아이도 하니까

(F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안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아가 안내해준 이후로는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었고 유아를 따라서 행동하며 한 번 더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즉, 유아로 인해 부모들도 인식을 제고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유아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천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한 혼돈된 환경교육의 의미정립과 유아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자료 제공,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 진행,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머니의 어려움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며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에 대한 혼돈과 유아의 관심 부족 또한 환경교육을 활발하게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1) 인식과 실천의 괴리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육아와 살림을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바쁜 삶을 보내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 외의 다

른 부분은 신경 쓰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환경문제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없는 것 또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언젠가는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종말이 올 것 같다. 너희 세대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중략) 그런데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자세하게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중략) 제가 일을 하고 바쁘게 지내니까 집에서 그냥 씻고 먹이고 숙제 봐주고 “들어가 자” 이게 반복이니까

(A어머니, 2차면담, 2023. 6. 21)

일 끝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일 끝나면 와서 밥 먹어야 하고 밥 먹고 나면 씻어야 되고 일하면서 아이를 가르쳐 준다는 건 힘든 것 같아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아이한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럴 여력도 안 된다랄까? 일단은 둘째가 있으니까 둘째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유가 없어요.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환경보호도 크게 보면 정말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당장 유치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하고 당장 눈높이 몇 장을 끝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환경 관련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구호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는 게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는 교육인 한글이나 숫자조차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를 인식하여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녁에 직장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과를 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

였으며 유치원 숙제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적극적인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해주고 나도 실천하기가 사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우리가 물을 못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 하면 할 텐데 이게 쉽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아무래도 이상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살기 점점 안 좋아지겠구나. (중략) 뉴스 보면 많이 체감하고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먹는 물이 지저분하거나 체감으로 딱 바로 느끼는 게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제가 막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아니니까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D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나중에 진짜 우리 애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면 어떡하지? 매립지도 거의 없잖아요. 나중에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때문에 점점 살기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그런데 현실은 제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물이 녹물이 나와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당장 버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집안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하여 현재 본인이 입는 치명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마시는 데 어려움이 없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불편함이 크게 없어 인식이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고 이

야기하였다.

(2)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 혼돈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진정한 환경교육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며 환경교육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꼈다. 즉,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가 혼돈되어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명확하지 못함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수원에서 환경 관련 행사를 며칠 동안 했는데 환경 행사보다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거 다 쓰레기잖아요. 그게 무슨 환경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나라에서 한 건데 주제는 환경인데 환경스럽지 못하잖아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아나바다 해도 들고 도는 쓰레기예요. 우리 집에서 보내는 쓰레기. 근데 저 사람도 집에 가져가면 또 쓰레기예요. 그래서 아나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중략) 들고 도는 쓰레기예요. 특히 인형 같은 것도 사실 집에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중략) 근데 그 인형은 분리배출도 안되고 진짜 쓰레기의 재생산이에요.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의 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사와 아나바다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환경교육이 교육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하였다. 수많은 쓰레기와 일회용품이 나오는 친환경 행사, 쓰레기가 들고 도는 아나바다 활동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환경교육의 의미정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뭐가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걸 또 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싫고 재활용이 안 되어서 일반 쓰레기에 넣는 것도 싫고 그래서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플라스틱에 뭔가를 붙이는 행위는 안 해요. (중략) 유치원에서 가져올 때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되면 제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환경파괴잖아요. 가끔 뭐가 더 나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텀블러나 물통을 사용하면 세제랑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나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물티슈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행주를 사용했어요. 근데 행주도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더 환경적으로 좋은 건지 물을 많이 쓰는 게 나은 건지 물티슈를 사용해서 소각하는 게 나은 건지 뭐가 더 나은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재활용품 만들기랑 비슷해요.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페트병으로 만들기를 해서 뭘 붙이고 막 이러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교육인가 싶은 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내가 노는 건 좋은데 어차피 이걸 분리배출 안 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말로만 환경교육이지 사실은 쓰레기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만들기를 하려고 스티커 붙이면 스티커 쓰레기 나오지 코팅해서 붙이면 코팅 쓰레기 나오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결국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조금 그래요. 이게 맞는 것인가?

(A어머니, 면담, 2023. 6.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더 많은 쓰레기를 파생시키는 재활용품 만들기,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그 중간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환경교육의 의미가 혼돈되어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즉,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의 의미 그리고 효과와 가치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어 실천을 하면서도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환경교육 실천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였다.

(3) 유아의 관심 부족과 짧은 지속성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은 유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부족해 어머니가 주도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와닿지 않아 하며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환경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해 시작하기조차 힘들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환경교육의 이해도 및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유아의 관심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이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가 먼저 하는 건 무조건 반감이 들거든요. (중략)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일단 엄마가 말하는 걸 들으려조차 안 하는 게 크니까 (중략) 너무 교육적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근데 재미있어하면 하는 거죠. 본인이 먼저 관심이 생겨서 하면 잘 하는데 엄마가 설명을 해주고 하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으니까요. (중략) 아이의 관심에 따라 아이가 물어보면 이어서 말해주는 경우 아니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북극곰에 대한 거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저거 봐봐. 북극곰이 얼음 없어서 지금 헤엄쳐서 어디까지 갔대”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냥 “또 시작이구나” 그래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중략) 제가 말하면 애들이 그냥 ‘또 시작이구나. 잔소리’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흥이 별로 없어요.

(A어머니, 1차면담, 2023. 6. 17)

냉장고 문 닫으라고 물 아껴 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아 해요. 그냥 그때 혼나니까 “알겠어요” 하고 잔소리로 느끼지.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아이한테 뭔가 알려줘야겠다는 건 제가 뭔가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면 일단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요. (중략) 영상으로 같이 해서 한다면 좀 낫겠지만 말로만 설명해서
는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흥미가 없잖아요.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 가졌을 때 “아, 그래. 그럼 이거
해볼까?” 이라고 데려가야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걸 알지 그냥 무턱대
고 데리고 가서 “이건 이거야” 설명해주면 듣지도 않아요. (중략) 뭔가 궁금해하고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그때는 해주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중략) 뭐든지 아이가 관심이 있어야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같
아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야 환경교
육이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유
아들에게 아무리 환경교육을 한다고 해도 유아들은 집중하고 받아들이기 어
려워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 봐 조
심스러워하였고 잔소리로 여겨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므로 시작부터 어려
워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가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
는 것과 같이 유아는 먼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거나 재미를 느끼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환경교육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는 한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2)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요구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환경교육의 방법

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실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환경교육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1) 실용적인 자료 제공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매체나 노래가 제작된다면 더 쉽고 재밌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사용한 영상, 교재, 포스터와 같은 환경교육 자료를 가정에 제공해 준다면 가정에서도 환경교육을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어떤 내용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들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안내해주는 자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니까 비디오 플랫폼에 환경 관련된 영상이 나와도 잘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콘텐츠를 이용하면 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요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중략) 그러면 더 쉽게 보고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요?

(D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전 둘째가 있고 첫째 아이는 아직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펴서 제가 뭔가를 설명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럼 또 둘째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자료는 동영상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중략) 환경 관련된 만화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캐릭터가 나오거나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게요.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I어머니, 2차면담, 2023. 8. 22)

아이들이 보기 편한 자료요. 아이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아이들 관심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애들 보는 만화도 보면 환경문제를 되게 많이 다뤄요. 그런 거 하나씩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재밌거나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한 번은 쳐다보니까요. 근데 영상이어도 좀 지루하게 나오면 아이들이 잘 안 보거든요.

(J어머니, 1차면담, 2023. 8. 20)

한글을 알려주는 TV만 봐도 아이들은 딱 알거든요. '아, 저게 교육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중략) 환경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들한테 들리지 않을 것들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손 씻기 할 때 노래로 했었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손 3번 씻어", "333 이 닦기야" 이렇게 하면 안 와닿으니까 노래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좀 다가오지 않을까?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재미있는 환경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아들은 영상이라도 재미가 없거나 교육이라고 느껴지면 보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만화영상 또는 쉽고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와 같은 자료를 원하고 있었다. 즉, 교육적 요소만 들어있는 자료가 아닌 재미 요소가 가미된 더 풍부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유아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유아 주도로 원활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환경 관련 수업을 하고 어플이나 큐알코드 보내주면 집에서도 한 번 더 영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그런 큐알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집에서도 영상을 보여줄 때 유치원에서 봤던 환경교육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결해서 집에서도 해주면 아이가 완전 뇌리에 박히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유치원에서 환경교육 했던 연계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런 연계자료를 집으로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포스터를 봤어요. (중략) 이거를 아이가 안 버리고 벽에 붙여놓고 “엄마 화났어? 이거 보고 숫자세기 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주면 아이가 포스터를 잘 봐요. 교육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환경에 관한 것도 어린이집에서 교재나 포스터처럼 같이 연계되어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어머니, 2차면담, 2023. 6. 21)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환경교육의 자료를 가정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큐알코드를 활용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된 환경교육 관련 영상을 공유해주거나 관련 교재, 포스터를 보내준다면 가정에서도 영상과 교재를 유아와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포스터는 부착해 수시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부담 없이 더 쉽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고 유아들은 연속적인 배움을 통해 환경교육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교재 같은 걸 주거나 지식을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이라고 하면 그냥 재활용이라는 단어만 봐도 아이가 모르잖아요. 다시 쓰는 거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걸 어떻게 다시 쓰는 건지 아이가 아예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 거죠. 말로 해도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경험 자체도 없고 아예 다른 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어버리니까요.

(I어머니, 2차면담, 2023. 8. 22)

저는 제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운더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시 단위든 도 단위든 쉽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면 사실 엄마들도 모르겠다는 게 너무 막연해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지들을 시나도에 신청해서 교육 듣는 것 말고 요즘에는 콘텐츠도 워낙 잘 만들어지니까 카드뉴스라던가 이런 걸로 몇 가지만 집어줘도 거기에서 파생해서 찾을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런 꼭지를 예를 들면 '분리배출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처럼 분리배출이란 꼭지 하나, 이산화탄소라는 꼭지 하나, 전기라는 꼭지 하나, 물이라는 꼭지 하나 이렇게만 해서 거기의 중요성을 하나만 알려줘도 엄마들이 '아 이렇게 애한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하고 OTT를 찾아보든 비디오 플랫폼을 찾아보든 책을 찾아보든 파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조금 막연할 것 같기는 해요. 교육이 아니더라도 카드뉴스라던가 짧은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시·도청에는 DB가 있으니까 4세부터 7세 사이의 엄마라던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는 DB를 활용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관 같은 것도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좀 주시면 기관에서는 보내주실 수 있는 유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부모들은 일부러 찾아보시겠지만 사실 이런 걸 모르는 부모들은 어쨌든 매주 아이랑 어디든 나가야 하긴 하거든요. 아이랑 집에 있는 게 힘들니까 어디든 나가시긴 할 텐데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곳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그래도 그런 곳을 한 번 더 갈 수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C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의 내용을 유아들이 더 쉽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하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과 관련된 용어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내용으로 환경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 막연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기본적인 환경 관련 지식과 정보를 부모들이 이해하고 받아보기 쉽도록 안내해준다면 환경교육을 시작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국가 차원으로 모든 유아 부모에게 배포한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부모들은 각자의 방법을 통해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춰 가정에서 풍부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환경과 관련된 주변의 지역사회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안내해준다면 재미있는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유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 진행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진행한다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계활동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환경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환경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부모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미션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안 사 먹고 과자 가지고 다녀보기' 이런 거요. 아이들은 챌린지처럼 도장 찍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엄마랑 같이 하게 하면 엄마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미션을 주고 그걸 해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후활동이라고 그래서 매주 읽은 책 제목을 써서 가면 도장을 매번 받아와요. 그 도장을 끝까지 다 채운 어린이한테는 뭘 준다고 미션처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환경도 그런 게 있으면 더 잘 하지 않을까?

(I어머니, 2차면담, 2023. 8. 22)

지금도 유치원에서 알림장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때때로 '오늘은 이런 것 실천해보기' 라고 알림이 오면 이걸 얘기를 해주고 "오늘은 이걸 하는 날이래. 이렇게 체험을 해보자. 몸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뭔가 알림을 받고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해보아요' 하고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과 연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활동을 미션의 형태로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움 없이 쉽고 재미있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수행을 완료한 유아들에게는 도장을 찍어 주거나 작은 선물을 부여한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미션의 과정과 방법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한테 한 번 더 새겨주니까 그런 게 좋아서 저는 소소한 숙제가 좋아요.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뭘 자꾸 해주는 게 좋고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일부러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하는 숙제도 하고 가서는 발표를 하니까 그 숙제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래서 더 새겨지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

지 단계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실천해서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선생님이 봐서 선생님이 칭찬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것까지 과정이 이어지니까 뭔가 이 숙제가 딱 하나만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E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저처럼 관심 없는 엄마는 솔직히 약간 무지하잖아요. 생각조차 안 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실천하지 않았던 부분도 그런 걸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배우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G어머니, 2차면담, 2023. 8. 27)

한 번 더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게 준비물이 재활용품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쓰레기 줍는 모습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재활용품 모아서 보내고 쓰레기 줍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요.

(F어머니, 1차면담, 2023. 6. 29)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중심의 연계활동은 환경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결되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아들이 교육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또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도 유아와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가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3)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유아 어머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노출도를 높임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며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부모와 유아 모두가 큰 수고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에 TV에서도 나오긴 하잖아요. 탄소중립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하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비가 갑자기 엄청 오거나 기후변화가 엄청 심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꾸 유치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뭔가 심각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중략) 확실히 눈에 많이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들여야 심각성이 더 와닿으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D어머니, 2차면담, 2023. 7. 4)

사회적 분위기가 ‘환경보호 합시다’ 라고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처럼 뭔가 많이 생기면 더 동참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다닐 수 있는 게 동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에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I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불편함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근데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접할 기회도 사실 없어요.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노출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의 노출이 중요해요. 어린이집에서도 애들한테 노출을 많이 해주면서 알려준다거나 가정연계학습을 할 때 환경적인 걸 하면 엄마들도 좀 와닿지 않을까? 와닿지 않아도 한 번은 실천할 수 있으니까 TV든 지나가는 길거리든 행사든 뭐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겠어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큰 경각심을 느끼며 친환경적인 실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길거리, 유아교육기관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환경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친환경 캠페인과 행사 등을 많이 개최해 환경을 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다면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정에서도 환경교육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근방에 떨어져 살 수 있는 매장이 많고 그게 모두에게 일상화가 되어있고 그게 비싸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있으면 되는데 사실 친환경 마트도 다른 일반 마트 보다 비싸고 편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중략) 그런 구조나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비닐은 계속 나오는 이 제도적 한계, 환경적 한계, 사회적인 시스템이요. (중략) 아이가 "엄마 비닐 그렇게 줄이라더니 왜 비닐에 담긴 사과를 사?"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B어머니, 2차면담, 2023. 7. 3)

라벨을 뜯어야 되는데 라벨 뜯는 게 어른들도 잘 안 뜯기는데 접착제 부분은 더 안 뜯기잖아요. 그래도 남아있고 이것까지 도대체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이걸 도저히 아이한테 시킬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좀 쉽게 뜯을 수 있거나 정말 무라

벨이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C어머니, 1차면담, 2023. 6. 27)

백화점 쓰레기통에는 뭐가 쓰여있지 않잖아요.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쓰여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버리는 건데 또 다른 곳 쓰레기통에는 글씨만 쓰여있었어요. '페트병', '캔' 이렇게 근데 어떤 곳에 가면 그림이 같이 있어요. 페트병이면 페트병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글씨를 몰라도 "엄마, 내가 버릴게" 하고 본인이 버리더라고요. (중략) 우리가 어른일 때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죠. 거기에 페트병이라고 쓰여있던 옆에 그림이 있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저렇게 하면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H어머니, 1차면담, 2023. 8. 17)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배출 하기와 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누구나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유아 부모들은 유아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논리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유아들은 언제 어디서든 실제적인 경험을 하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유아 어머니들의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를 알아본 결과, 환경교육은 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유아기부터 친환경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교육은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여 자신의 행동이 환경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교육이고 유아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환경교육을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이해하였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동식물 멸종위기 등의 환경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으며 유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었다. 본인이 어렸을 때 누렸던 환경을 현재의 유아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며 미래에는 유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생태지향주의 환경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윤이(2012)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기의 환경교육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본 권리와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가치관 교육이라고 정의한 최윤지(2019)의 견해와도 상통한다. 이처럼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며 다음 세대에도 유아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며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박희재(2019)는 유아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을 배양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평생 환경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교육이자 습관형성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어머니들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유아들에게 있어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체득하여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므로 유아기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에 최적의 시기임을 이야기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유아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는 환경과 관련된 바람직한 인식과 행동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야 하며 부모 스스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신념, 태도를 갖고 일상에서 유아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환경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주, 2010; 정은우, 2013). 그리고 유아는 이를 통해 형성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

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행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깨달아야 하는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아들이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을 위한 태도를 왜 지녀야 하는지 알고 유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환경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과 환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환경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교육의 개념을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김강희(2014)의 견해와 비슷하며 환경교육은 자연과 인간·문화 환경의 상호관련성 및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공동체적 정서와 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는 최호희(2019)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유아 어머니들은 인간과 환경은 유기적인 관계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환경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이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몸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유아들은 더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설명해주는 것만이 아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더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환경교육은 지식만을 습득하는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해보고 직접 체험하는 실제적인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 환경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체험들을 통해 환경의 보호와 개선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송순옥(2018)의 의견과 환경교육은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경교육 내용은 가급적 관찰 및 실험 중심, 현장학습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조직되어야 한다는 환경부(2022)의 의견을 지지한다. 이처럼 환경교육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을 더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경험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체험장소를 방문하여 유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가정에서도 활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유아가 기관에서 경험한 환경교육의 내용을 기억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유아 주도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옥새별(2023)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유아 개인의 생활 경험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유아들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유아 어머니들은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유아들

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며 유아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불어 유아들이 자연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휴지, 물, 종이 등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음식을 남기는 등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바람직한 행동의 지침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해주었다. 유아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을 격려할 수 있도록 유아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홍수지, 2022)는 점에서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일상 속에서 유아에게 친숙하고 쉬운 소재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태도, 행동에 대해 안내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 어머니들은 그림책,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환경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그림책이나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뉴스 등의 영상을 통해 유아의 환경에 대한 흥미도 및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돌고래, 북극곰과 같이 유아가 좋아하는 동물을 환경과 접목시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진, 홍수 등 현재의 환경적인 이슈를 활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이후에는 매체에서 본 자연물과 생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체에서 접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노력하였다. 장지연(2017)은 동화, 사진, 동영상 등 매체를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은 유아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 태도, 지식, 행동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유아 어머니들은 이를 통해 유아들이 이전보다 환경에 대해 더 친숙함을 느끼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환경에 대한 관심, 행동, 태도가 증진되는 환경교육의 효과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여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생하고 풍부한 시청각 자료

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필경(2017)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친환경적인 기관을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놀이, 만들기, 게임, 영화시청 등의 체험을 하면서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은 체험했던 기억을 떠올려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환경적인 행동을 지속하였는데 스스로 재활용품을 이용해 미술작품이나 조형물을 만들고 환경 관련 게임과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에너지 절약에 힘썼다. 이처럼 유아 어머니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 행동을 습득하여 일상 속에서도 이를 적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는 체험중심 환경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보존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세영(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유아와 같이 가장 낮은 학년 수준에서의 환경교육 내용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환경부(2022)의 의견과 상통한다. 또한 유아 어머니들은 실내보다 공원, 농장 등의 야외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과 친숙해지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곽은복(2005) 또한 효과적인 유아 환경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교수보다는 경험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자연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만이 자연과 인간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연의 심미적 가치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연환경을 가치있게 여겨 보호하고자 하는 정서적 성향이 잘 형

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유아 어머니들도 풀과 꽃,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옥수수와 토마토에 직접 물을 주고 키우며 달팽이, 개구리, 딱정벌레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써 보호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넷째,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환경과 관련된 놀이의 경험이 가정으로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제지원, 정수진(2021)은 유아의 놀이 속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유아 어머니들은 기관에서 보내준 식물을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키우거나 기관에서의 텃밭활동으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유아를 위하여 모종을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숲체험 활동을 하기 전·후로 관련 책과 영상을 보면서 동·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미술놀이,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유아와 함께 마라카스, 로봇, 펭귄, 고양이 등을 만들고 분리배출 게임을 즐겼다. 이처럼 유아 어머니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과 행동이 가정에서도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놀이중심 환경교육은 유아의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환경감수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현, 2022)는 점에서 유아 어머니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 관련 연계활동을 수행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분리배출을 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의 사진과 영상을 찍고 환경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벌과 돌고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도우면서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보내준 식물키트와 관찰도감을 활용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은 이러한 연계활동을 통해 일상에서도 분리배출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지속하였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이처럼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며 연계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이는 유아 환경교육에 있어 가정과의 연계가 없는 단독적인 접근은 유아의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나의 학습경험으로만 머물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박희숙, 2009) 유아 환경교육은 가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조미정, 2022). 더불어 부모는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므로 교사와 부모 서로가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유아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정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소영란(2019)의 의견과 같이 유아 어머니들은 실제로 환경교육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교육자로서의 부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여섯째,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온 유아들의 주도하에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가정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 내 환경교육에서 습득한 실천적 지식과 환경 가치관 및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보고한 오진미(2014)의 주장과 같이 유아들은 실제로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절한 환경용어 사용법에 대해 부모에게 안내하며 기관에서 배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 행동을 가정에 전파하였다. 부모는 이를 계기로 유아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식을 제고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노력하면서 환경교육 실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아들은 기관에서 배운 올바른 환경관과 친환경 행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일상에서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태도나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조미정, 김승희(2021)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은 유아가 기관에서 습득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체득할 수 있는 장소로써 부모는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올바른 모델링이 되어주면서 유아주도의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3) 유아 어머니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요구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들은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이 실천으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인식과 실천의 괴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환경교육의 의미가 혼돈되어 환경교육을 실천하면서도 진정한 환경교육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환경에 대한 유아의 관심도가 낮아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워하였다. 그리고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 내에서 환경교육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도 갖고 있었는데 부모에게는 환경교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유아에게는 환경교육을 재미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마련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과 관련된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실천적인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의 삶을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육아 및 살림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고 유아교육기관의 숙제를 할 시간조차도 부족한 현실로 인해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재 환경문제로 인하여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박희숙(2009)이 보고한 부모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및 필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 환경보전 실천 정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연구와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은 높으나 환경보전 실천이나 환경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조미정, 김승희(20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인식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쉽고 수월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풀어내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 어머니들은 혼돈된 환경교육의 의미로 인해 환경교육을 원활하게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교육을 실천하면서도 환경교육의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일회용품이 난무하는 친환경 행사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아나바다 운동, 재활용품 미술놀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환경교육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천 과정 속에서 환경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서 환경교육에 회의감을 느꼈다. 이는 부모들은 환경교육에 많이 노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주장한 조미정(2022)의 견해와 의미를 같이한다. 이에 가정에서 유아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명확하고 올바르게 환경교육의 의미를 정립하여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부족함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면 유아들은 잔소리로 생각해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며 형식적으로만 반응하거나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아들이 환경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환경교육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유아 환경교육은 유아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유아 스스로가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박세영, 2012). 또한 유아에 의해 활동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하며(이선자, 김신영, 1994)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즉, 유아 환경교육은 유아를 중심으로 창의성, 호기심, 내적 동기 유발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효율적이다. 또한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고찰을 통해 개발된 유아교육의 기본 교수원리를 환경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유아를 위한 환경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안사랑, 2013).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유아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통해 유아가 주도하는 환경교육이 실천되도록 부모에게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에서의 환경교육 실천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자발적인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나 노래 등 다양한 매체 자료가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이는 유아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자료는 평면적인 자료보다는 각종 시청각 자료와 잡지,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오감을 자극해 주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환경부, 2006).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포스터, 교재, 영상 등의 자료가 가정으로 공유되기를 요구하였다. 유아가 기관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웠던 환경교육의 내용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다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가정에서의 연계 학습은 기관에서 선행된 활동을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함으로써 활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복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Sonnenschein & Munsterman(2002)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한다(조미정 재인용, 2022).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자료나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수방법 자료, 환경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정보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내용적·방법적 측면을 다루는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아 어머니들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실천 중심의 연계활동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모두가 수행하는 다양한 친환경 미션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환경에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션을 완료한 후에는 선물 제공, 도장찍기와 같은 작은 보상을 부여한다면 성취감과 흥미를 느끼며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더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진미(2014)는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주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환경 보전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들 또한 이러한 연계활동은 기관과 가정이 협력하여 연속적인 흐름에 따라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관 및 행동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환경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부모들은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인식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고(Epstein, Dauber, 1991: 소영란, 2019 재인용) 부모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실천하면서 환경보전 태도와 환경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조미정, 김승희, 2023). 이를 종합해보면 가정연계 활동은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이 정립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다양한 실천 중심의 가정연계 활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문제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요구하였다. 언론매체, 길거리, 유아교육기관 등 생활주변에서의 환경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고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친환경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의 실천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불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부모는 유아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무라벨 용기를 더 많이 도입하고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에는 분리배출의 방법을 그림으로 표기해 유아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천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정부는 환경 관련 법적 규제를 만들고 제안, 충고, 권고 등의 친환경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박원곤, 2017).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

고 기업에는 제품생산에 대한 환경 규제와 검열 등을 집행하는 역할(정혜인, 2010)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환경과 관련된 관심, 태도, 행동 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보다 활발하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변화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어머니의 이해와 경험에 대해 결론은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있었다. 환경문제로 인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였다. 이에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미래의 자녀들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하여 환경교육은 필요하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어린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을 통해 친환경 행동이 유아의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가정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에게 부모의 행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모는 환경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유아는 모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며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곧 환경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는 교육으로써 환경문제의 원인을 알고 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인식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환경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지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 어머니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환경교육을 이해하였다. 이론적인 안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야 유아의 이해도 및 흥미도가 높아져 더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아의 기억에 오래 남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하는 교육이 환경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유아 어머니들의 가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유아에게 환경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유아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유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주며 유아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또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유아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된 그림책이나 다큐멘터리, 뉴스 등의 영상을 제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방문하여 유아들의 환경관과 친환경 행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박물관, 과학관, 행사장 등을 방문해 놀이, 만들기, 게임, 영화시청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원과 농장을 방문해서는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

해 유아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교육 실천에 힘쓰고 있었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도 환경교육을 실천하였는데 기관에서 진행한 숲활동, 텃밭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가정에서도 식물을 키우며 보호하는 마음을 기르고 기관에서 배운 동·식물과 관련된 그림책이나 영상을 통해 관심이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기관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재활용품을 활용해 미술놀이와 소꿉놀이를 즐기고 분리배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를 통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더불어 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연계활동에 유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쓰레기를 줍거나 분리배출 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식물키트와 관찰도감을 활용하여 직접 식물을 키우는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이 먼저 부모에게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절한 환경용어 사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기관에서 배웠던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정 내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함에 따라 부모도 자연스럽게 유아에게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이며 노력하였다.

셋째, 유아 어머니들의 환경교육 실천 과정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필요한 요구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았으나 기본적인 일과를 보내기도 빠듯한 바쁜 삶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에 따라 인식이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으로 인하여 입는 치명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실천하면서도 환경교육의 의미가 혼돈되어 진정한

환경교육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실천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아의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나타난 어려움도 있었는데 환경교육을 하려고 시도해도 집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유아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환경교육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관과의 연계학습이 가능한 자료가 제공되기를 원하였고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환경교육 실천방법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이는 부모와 유아가 모두 함께 환경을 위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기관과 가정의 환경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교육적인 효과 또한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 환경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 캠페인과 행사 등을 더 많이 개최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데 큰 수고로움과 제약이 없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가 구축된다면 환경교육 또한 일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경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대상자를 탐색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데 자녀의 양육과 발달,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아버지 또는 부모의 이해와 실천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환경교육의 실상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환경교육은 가정과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에 의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이해와 실천 경험 및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유아 환경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이 어린이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으로 편중되어 있어 기관유형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유아와 부모는 모두 유아교육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자녀의 기관유형이 고른 분포로 나타날 수 있게 선정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민수(20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아 환경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곽은복(2005). 생태지향적 관점에 근거한 유아 환경교육의 전망. **아동교육** 14(1), 83-96.
- 권은선(2012).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기상청(2023). **기후변화 2023 종합보고서**. 대전: 기상청
- 김강희(2014). 가치명료화 교수모형을 적용한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서령(2003). 환경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경험이 자녀 지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세령(2022). 만 3세 학급에서의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중심 환경 교육 실행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세영(2002). 체험중심의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수경(201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녹색성장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우신욱(2014).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환경 관련 교육 내용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8(1), 365-386.
- 김영미(2022). 뉴스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및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영주(2010). 환경과 자연친화 유아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인천대학

- 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윤이(2012). 부모의 환경태도 및 환경보전행동과 유아의 환경태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은하(2012).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정필(2001). 환경보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인식과 실천의 정도에 미치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지숙(2012).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22). 만 5세 하늘반의 환경교육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진향(2013). 유아교육기관의 환경교육실태 및 부모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나혜선(2016).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남상준(2010). **환경교육론**. 서울: 대학사
- 동아유치원(2006). **유아 환경 교육의 실제**. 서울: 창지사
- 류혜숙, 신금호(2010). 생태동화를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4), 189-208.
- 박강인(2018).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가치관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천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세영(2012). 환경동화를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 활동이 친환경적 태도와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신영(2011). 인터넷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원곤(2017). 그린마케팅을 고려한 기업의 신문광고 디자인 분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윤애(2017). 환경기념일 중심의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7).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환경친화적 교육태도와 유아의 환경태도 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희숙(2009). 가정 연계 모델 중심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1-23.
- 박희숙(2010). 유아의 환경소양 증진을 위한 가정연계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연구**, 30(3), 215-238.
- 박희재(2019).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9).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세종: 보건복지부.
- 서정희, 염수경(1998). 교사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유아환경교육요구도. **소비문화연구**, 1(1), 67-91.
- 소영란(2019). 가정연계활동을 포함한 유아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송수연(2016). 지속가능발전지향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험연구의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송순옥(2018).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교육**, 27(2), 47-64.
- 신미영(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신옥란(2005). 유아 환경교육의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신은수, 박은혜(2012). 유아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구성 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정 비교를 기반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3), 71-91.
- 안미유(2023). 플로깅을 활용한 유아탄소중립교육을 통해 나타난 만5세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변화와 기후변화 이해에 대한 실험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안사랑(2013).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안희(2022). WHO "전 세계 99% 이상 미세먼지 노출...대기질 새 기준 필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9047500088>
- 오진미(2014).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옥새별(2023). 구성주의 교실에서 3세 유아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실험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유혜숙(2015). 생태그림책을 활용한 자연친화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윤기영, 조경희(1993). **유치원의 환경교육**. 서울: 교문사
- 윤애희, 박정민(1998). **유아환경교육**. 서울: 보육사.
- 이근왕, 김용환(2008). 환경교육을 위한 3D 가상체험 소프트웨어의 구현.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101-103.
- 이선자, 김신영(1994). 유아 환경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環境教育**, 6(1), 9-26.
- 이수연(2016). 지속가능발전지향 환경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과 자연

-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 논문.
- 이혜란(2016). 만 4세 유아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효정(2013). 유아교육기관의 환경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수민(2015). 광고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효선(2010). 가정 연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실태 및 인식 요구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예지, 김민진(2011). 생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2), 85-107.
- 임홍하(2022).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에 기초한 유아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장은숙(2019). 부모인식, 유아교사인식 및 실체가 자연친화교육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장지연(2017). 수학 스토리텔링을 통한 환경보전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보전태도 및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장필경(2017). 일상생활과 연계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서진(2020). 원예활동 중심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감수성과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은우(2013). 생태놀이를 활용한 유아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 친화적인 태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현미(2020). 인터넷 기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언어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혜인(2010). 에코라벨링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제지원, 정수진(2021).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실태 및 환경교육내용 중요도 인식.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5(3), 49-67.
- 조미정(2022).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광주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조미정, 김승희(2021).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과 실천. **학습자중심5심교과교육연구**, 21(24), 907-919.
- _____ (2023).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7(2), 7-42.
- 조정윤(2021). 비주얼씹킹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감수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조형숙, 김설한(2011). 유아 환경교육의 연구 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5(2), 419-445.
- 지옥정, 조부경, 서윤희, 정애경(2017).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환경교육**. 서울: 창지사
- 채아영(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환경교육 연구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채영란, 임성혜, 박유영(2011). 환경동화에 기초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환경

- 친화적태도 및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1), 351-369.
- 최돈형(1991).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 **환경정보**, 13(3), 10-14.
- 최명진(2020). 텃밭 가꾸기를 통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생명존중인식 및 생태적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명하, 조부경(2012). 사진을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 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1(3), 115-139.
- 최옥란(2010). 유아교육기관의 환경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최윤지(2019). 유아기 지속가능발전지향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최현희(2023). '23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본 미래 리스크의 변화. **주간 KDB리포트**, 1014, 1-2. http://rd.kdb.co.kr/FLPBFP03N01.act?_nuId=FYERER0031#__init__
- 최혜숙, 심규철, 소금현, 여성희(2007). 중학생들의 환경관에 대한 조사 연구. **環境 敎育**, 20(3), 102-112.
- 최호희(201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언어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허윤정(2001). 통합적 접근에 의한 동물 기르기가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홍수지(2022). 에코디자인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홍순주(2007). 가정과 연계한 환경체험학습이 초등학생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홍지명(2010). 전통문화에 기초한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환경부(2002).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전략 개발 연구. 서울: 한국환경교육학회
- _____(2006).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서울: 양서원
- _____(2015). 함께 잘 사는 길, 환경교육. 서울: 환경부
- _____(2020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환경교육. 세종: 환경부
- _____(2020b).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7634
- _____(2020c).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용어사전. 서울: 환경부
- _____(2022). 2022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세종: 환경부

ABSTRACT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Parents in Environmental Education

Ye - Ji Kim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t home by exploring the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mother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felt in the actual and practical proc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acticed at home. The research questions set according to these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mothers' environmental education?

Second, what is the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mothers in practicing environmental education at home?

Third, what are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of infants' mothers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environmental education at hom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 mothers of infants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and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total of 20 in-depth interviews twice for each study participant from June 17 to August 26,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repeatedly read, the overall context was grasped, a common topic or word was found within the content that met the research purpose, and the link between the contents was found and categoriz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we tried to reduce methodological, interpretive, and procedural errors through a review process by fellow researchers, research participan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s through continuous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mothers' environmental education, early childhood mothers were understanding environmental education as an education necessary for the future. In other words, it was thought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was necessary for infants to live healthy in an environmentally better future than the present. In addition, mothers understood environmental education as one of the necessary education to form lifestyle habits, and for this, mothers at home should model positively for infants with an eco-friendly life. In addition, early childhood mothers understood environmental education as education tha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sequences of actions and allows them to grasp the principles and flows of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direct experi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early childhood mothers' practical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at home, it was found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led by familie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acticed in conne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First of all, infants' mothers were intentionally performing eco-friendly actions in their daily lives, setting an example, and properly guiding infants when they acted unfavorable to the environment, so that they could naturally develop attitudes and behavior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their daily lives. In addition, various media such as environmental picture books and environmental documentaries were used to interact with infant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was practiced by participating in various environmental event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hands-on experience.

Mothers created conditions for children to continue to enjoy various play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conduct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t home, and provided real materials, videos and books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at the institution to expand their interest in the environment. In addition,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environment-related activiti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 we tried to continuously guide infants about the environment, induce behavior, and promote correct environmental awareness. In addition, mothers of infants naturally practiced environmental education by guiding infants to take the initiative at home by recalling their environmental education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implementing environmental education at home by early childhood mothers, they recognized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environmental education, but in reality, they lacked time and did not suffer significant damage from the environment, making it difficult to implement it. Children's low interest and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lso made it difficult to practice environmental education. In order to continue to practice environmental education, early childhood mothers demanded that materials such as media such as videos or fun songs that can arouse children's interest and guidelines containing environmental knowledge and methods and inform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be provided more easily and easi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task practice-oriented linkage activities that all families can perform toget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environmental events and campaigns, and create a social atmosphere.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환경교육에 대한 유아 어머니의 이해와 경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권 경 숙

연구자: 김 예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탐색하여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 2023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연구 참여자와 약 2회의 개별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1회당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 시 연구자의 면담노트 작성이 이루어지고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취 및 녹화됩니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로 활용되나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논문에서는 가명으로 표기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구 참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가 끝난 후에는 모든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하시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연구 참여자 :

(서명)